

일 대학병원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이상수 · 서정석 · 문석우 · 남범우[†]

Comparison of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Betwee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in a Korean University Hospital*

Sang Soo Lee, M.D., Jeok Seok Seo, M.D., Ph.D.,
Seok Woo Moon, M.D., Ph.D., Beom Woo Nam, M.D., Ph.D.[†]

국문초록

연구목적

항우울제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어지는 정신과 약물이다. 하지만 항우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한 일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항우울제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를 줄여 나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일 지역 대학병원에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공의 2인 및 수련의가 외래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면담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12문항으로 고안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 과

- 1) 내과 및 외과 계열 환자들 모두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았다.
-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보다 내과 계열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 3) 항우울제 복용 경험이 없는 환자들보다 항우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
- 4)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로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결 론

항우울제의 처방시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항우울제에 대해 근거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중심 단어 : 항우울제 · 태도 · 낙인.

서 론

항우울제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신과 의사

들에 의해 처방되어지는 정신과 약물이다.

1950년대 말 Thomas Kuhn에 의해 소개된 삼환계 항우울제가 그것의 임상 효능이 알려진 이래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전형계열 항우울제 약물들이 개발되었고, 이후에 초기의 약물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우수하고 내약성이 좋은 장점을 바탕으로 임상 적응증을 넓혀 가고 있다.

우울증상의 일차 치료제로 도입된 항우울제는 다양한 작용

*본 논문의 일부는 2007년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충주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Chu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기전을 배경으로 통증 장애^{1,2)} 및 여러 다양한 신체 증상³⁻⁸⁾에 효과적임이 보고되면서 정신과를 제외한 특정 타과에서의 항우울제의 처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우울제가 임상 영역을 넓혀 가는 것과는 반대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 정신과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높아 항우울제의 복용은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타과 입원환자들이 주치의로부터 정신과 자문 진료에 대한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환자들의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⁹⁾

Rabkin 등은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태도로서 놀랍고, 수치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없고, 불안정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가치있고 힘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고했다.¹⁰⁾ 이러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학습된 행동 특성으로 그 지역 사회의 전통문화와 사회적인 가치관, 개인의 성격특성, 사회계층이나 직업, 가족이나 주변인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체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또한 항우울제를 포함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 현상(Stigmatization) 등과 같은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태도 및 인식은 이미 정신과 치료가 보편화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조차도 공통적인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¹²⁻²²⁾

Stone 등은 신경과 외래에 내원한 영국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보고했다.²³⁾ Jorm 등은 999명의 호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 정도가 항우울제가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했다.²⁴⁾ Mikocka-Walus 등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사용해 치료한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항우울제가 환자의 통증 감소 및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항우울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보고했다.²⁵⁾

항우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약의 순응도와 관련되어 질병의 임상경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조사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일 대학병원 외래에 방문한 환자들 중, 정신과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에게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 둘째, 내과 계열 및 외과계열 환자들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이전 복용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 셋째,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개방성 태도는 각 계열별 환자들과 또한 인구학적 정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넷째, 이전 항우울제 복용 여부에 따라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 환자군들이 갖는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약물 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우울제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를 줄여 나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2007년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에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212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공의 2인 및 수련의가 외래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면담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연구에 동의하시는 일반 환자군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연령대는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치매나 정신지체, 한글을 못 읽거나, 설문지 작성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상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연구 목적을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23명이 거절하였으며(거절율 10.3%) 설문지 중 부분적으로 응답한 경우와 진료과가 기록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12명을 제외한 총 200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했다.

2. 연구방법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12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전 영국에서 실시된 Defeat Depression Campaign에서 선보인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로 수정 보완 하였다.²⁶⁾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4문항, 항우울제의 사전 인식 1문항, 항우울제의 전반적인 인식 3문항, 항우울제 복용 경험과 복용 의사와 관련된 3문항 그리고 항우울제의 타과 처방과 관련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에 관련하여 3가지 질문에 따른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중정도 부정도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다섯 단계로 자기

채점식 설문 보고 양식을 고안해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 처리 하였으며,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각과를 편의상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을 포함시켰으며, 후자는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을 포함시켰다. 모든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요약하였으며, 그룹간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일 지역 대학병원 내과 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별, 교육수준 별 인구학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이전에 항우울제에 대한 인지 및 사전 복용 여부 (Table 2)

1) 연구대상자 200명 중 항우울제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1명(45.5%)이었고, 외과계열(48명)이 내과계열(43명)에 비해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더 많다고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2) 항우울제를 이전에 복용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6명(8%)에 해당했고, 외과계열(11명)이 내과계열(5명)에 비해 더 많은 항우울제 복용을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주변에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1명(20.5%)였고, 외과계열(26명)이 내과계열(15명)에 비해서 주변의 항우울제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4$).

4)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명(15%)였고, 내과계열(19명)이 외과계열(11명)에 비해서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Table 3)

1)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의 50%에서 내과계열 환자들 보다(27%)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3$).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계열 환자들에 비해서 항우울제가 중독성이 있고, 항우울제는 우울증이 있을 때만 복용한다고 복용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이전에 항우울제 복용 유무에 따른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Table 4)

이전에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 항우울제가 중독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복용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았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4$).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항우울제가 몸에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1$).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항우울제 약물이 우울증이 있을 때만 복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and surgical group patients

	Medical outpatients(n=100)	Surgical outpatients(n=100)
Sex		
Male	54	53
Female	46	47
Age(year)		
Mean	55.37±14.715	50.49±18.108
(SD)	(1.471)	(1.811)
Habitual area		
Urban area	86	91
Rural area	14	9
Educational level		
Below middle school	61	51
Above high school	39	49

Table 2. Previously recognition of antidepressants

	Medical group(n=100)	Surgical group(n=100)	p-values
I've never heard about antidepressants	57	52	0.504
I've heard about antidepressants	43	48	
I've never taken antidepressants	95	89	0.118
I've taken antidepressants before	5	11	
I have person who's taking antidepressants around	85	74	0.054
I don't have person who's taking antidepressants.	15	26	
Antidepressants are prescribed in other clinics	81	89	0.113
Antidepressants are not prescribed in other clinics	19	11	

Table 3. Attitudes towards antidepressants according to the outpatient clinic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p-values
Psychotropics are addictive						
Medical outpatients groups	6	23	53	11	7	0.617
Surgical	6	28	42	14	10	
Antidepressants are addictive						
Medical	6	19	54	12	9	0.128
Surgical	9	23	38	25	5	
Antidepressants can cause physical harm						
Medical	8	19	48	18	7	0.003
Surgical	9	41	30	17	3	
Antidepressant are used only for depression						
Medical	13	20	55	8	4	0.948
Surgical	14	21	55	8	2	

Table 4. Attitudes towards antidepressants according to the previously antidepressant use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p-values
Psychotropics are addictive						
Absence of antidepressant use	9	49	88	23	15	0.182
Presence of antidepressant use	3	2	7	2	2	
Antidepressants are addictive						
Absence of antidepressant use	7	42	87	33	15	0.004
Presence of antidepressant use	4	2	5	2	3	
Antidepressants can cause physical harm						
Absence of antidepressant use	9	33	77	53	12	0.011
Presence of antidepressant use	2	3	1	6	4	
Antidepressant are used only for depression						
Absence of antidepressant use	25	39	104	13	3	0.001
Presence of antidepressant use	2	2	6	3	3	

Table 5. Willingness of antidepressant use according to specific groups

	When including antidepressants		p-value
	I will not take antidepressants	I will take antidepressants	
Medical	49	51	0.256
Surgical	41	59	
Male	48	59	0.966
Female	42	51	
Urban area	83	93	0.130
Rural area	7	16	
Below middle school	45	67	0.112
Above high school	45	43	

이 더 많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5. 항우울제에 대한 복용 개방성의 태도 (Table 5)

현재 약물에 항우울제가 포함될 때, 항우울제를 복용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10명(50%)였고, 외과계열(59%)가 내과계열(51%)에 비해서 더 많았으나 이 결과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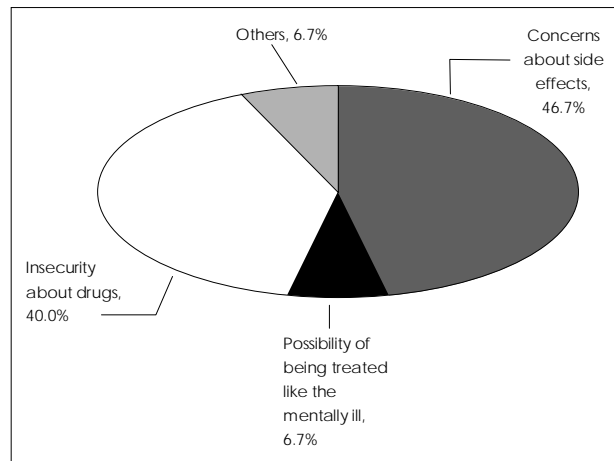


Fig. 1. Reasons to refuse antidepressants.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시단위 거주자가 군단위 거주자에 비해,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고졸이상의 학력자에 비해서 복용의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 (Fig. 1)

응답자들의 46.7%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웬지 모르게 불안하다(40%),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까봐(6.7%) 및 기타(6.7%)로 나왔다.

고 찰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 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인 환자들은 모두 정신과 진료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로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모두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았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23,24)}

항우울제를 이전에 복용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6명(8%)에 해당했고,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30명(15%)에 지나지 않았다.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계열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아 부정적임을 보여주었고, 다른 문항에서는 두 계열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가설로 주로 약물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내과계열의 환자들이 외과계열의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에 대해 더욱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복용경험도 많으리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내과계열 환자들이 더 많았지만, 외과계열과 큰 차이는 없어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의 계열과 항우울제의 태도 및 인식과의 연관성의 여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필요가 있겠다.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해로움, 자기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 인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시키는 약물로 여겨 거부감이 높았다고 보고했다.^{13,14,16)} 본 연구에서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제일 높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것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용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소견이다.²⁴⁾ 이것은 항우울제의 복용과 관련한 요소들 예를 들면, 복용경험, 타과의사들로부터 항우울제에 대한 설명

을 들어봤을 가능성 등이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약물 복용에 영향을 미치고,^{27,28)}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치료의 비용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²⁹⁾ 또한 의사 관련 요소도 약물복용과 연관이 있으며, 의사 환자 관계,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하는 태도 및 이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약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약물 순응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²⁸⁾

그러므로 의사들은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런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런 태도들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학습된 행동 특성이란 전제 하에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환자들의 염려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관심을 갖고 물어 봐야 한다. 또한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반응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신체질환에 대해 환자들은 자기에의 손상과 손상위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분리 불안, 주위의 인정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 신체 조절 능력 상실의 두려움, 신체 손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³⁰⁾ 항우울제가 정신과 약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타과 환자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설명 없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은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 환자 관계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일반인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이런 불편한 마음에 더욱 민감해야 하겠고, 항우울제 약물에 대해 근거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 중소도시의 대학 병원의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전체 내과 및 외과 환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대상자의 숫자가 적다는 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실제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 향후 더 많은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면담 당시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한 대상들이 제외되었는데, 결과에 편견(bias) 변수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자기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응답자의 신뢰성(reliance)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섯째, 12문항의 간단한 설문지로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보다 자세하게 측정할 수 없었으며, 향후 더욱 특정한 질문을 사용한 보다 정교하고 객관화된 질문지 형태의 설문지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이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일 대학병원의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과 및 외과 계열 환자들 모두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았다.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 계열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3) 항우울제 복용 경험이 없는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

4)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따라서, 의사들은 항우울제의 처방시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항우울제에 대해 근거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대학원 논문을 쓰는 바쁜 와중에도, 통계처리 및 표를 만들어 준 아내 정세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FERENCES

- (1) Leo RJ, Brooks VL. Clinical potential of milnacipran, a 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in pain. *Curr Opin Investig Drugs* 2006;7:637-642.
- (2) Ansari A. The efficacy of newer antidepressants in the treatment of chronic pain: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Harv Rev Psychiatry* 2000;7:257-277.
- (3) Guay DR. Rasagiline (TVP-1012): a new selective monoamine oxidase inhibitor for Parkinson's disease. *Am J Geriatr Pharmacother* 2006;4:330-346.
- (4) American Gastroenterology Association.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medical position statement: irritable bowel syndrome. *Gastroenterology* 2002;123:2105-2107.
- (5) Chancellor MB, Yoshimura N. Treatment of interstitial cystitis. *Urology* 2004;63:85-72.
- (6) Robinson S. Antidepressant for treatment for tinnitus. *Prog Brain Res* 2007;166:263-271.
- (7) Brown ES, Vornik LA, Khan DA, Rush AJ. Bupropion in the treatment of outpatients with asthma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Int J Psychiatry Med* 2007;37:23-28.
- (8) Seo JS, Moon SW. Antidepressants in the Psychosomatic Disorders.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2007;15:7-13.
- (9) Lee HS, Koh KB. Nonpsychiatric physicians' attitudes toward psychiatric consultation.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1994; 2:98-106.
- (10) Rabkin J. Public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chizophr Bull* 1974;10:9-33.
- (11) Lee EH, Kim KJ. The attitude of the inhabitants of Kwangju toward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2000;39:495-506.
- (12) Gary FA. Stigma: barrier to mental health care among ethnic minorities. *Issues Ment Health Nurs*. 2005;26:979-999.
- (13) Angermeyer MC, Matschinger H. Public attitudes towards psychotropic drugs: have there been any changes in recent years? *Pharmacopsychiatry* 2004;37:152-156.
- (14) Angermeyer MC, Daumer R, Matschinger H. Benefits and risks of psychotropic medication in the eyes of the general public: results of a surve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harmacopsychiatry* 1993;26:114-120.
- (15) Benkert O, Graf-Morgenstern M, Hillert A, Sandmann J, Ehmiß SC, Weissbecker H. Public opinion on psychotropic drugs: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r rejection 1997;185:151-158.
- (16) Caldwell TM, Jorm AF. Mental health nurses' beliefs about interventions for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a comparison with psychiatrists and the public. *Aust N Z J Psychiatry* 2000; 34:602-611.
- (17) Fischer W, Goerg D, Zbinden E, Guimon J. Determining factors and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s psychotropic medication. In: Guimon J, Fischer W, Sartorius N (Eds). *The image of Madness: The Public Facing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Treatment*. Karger, Basel;1997 p.162-186.
- (18) Goldney Rd, Fisher LJ, Wilson DH. Mental health literacy: an impediment to the optimum treatment of major depression in the community. *J Affect Disord* 2001;64:277-284.
- (19) Jorm AF, Korten AE, Jacomb PA, Christensen H, Rodgers B, Pollitt P. "Mental health literacy": a survey of the public's ability to recognize mental disorders and their belief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Med J Aust* 1997;166:182-186.
- (20) Jorm AF, Korten AF, Jacomb PA, Rodgers B, Pollitt P, Christensen H, Henderson S. Helpfulness of interventions for mental disorders: beliefs of health professionals compared with the general public 1997;171:233-237.
- (21) Jorm AF, Korten AF, Jacomb PA, Christensen H, Rodgers B, Pollitt P. Public beliefs about causes an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schizophrenia 1997; 32:143-148.
- (22) Priest RG, Vize C, Roberts A, Roberts M, Tylee A. Lay people's attitudes to treatment of depression: results of opinion poll for Defeat Depression Campaign just before its launch. *Br Med J* 1996;313:858-859.
- (23) Stone J, Durrance D, WSojeik W, Carson A, Shape M. What do medical outpatients attending a neurology clinic think about antidepressant. *J Psychosom Res* 2004;293-295.
- (24) Jorm AF, Christensen H, Griffiths KM. Belief in the harmfulness of antidepressants: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of the Australian public. *J Affect Disord* 2005:47-53.
- (25) Mikočka-Walus AA, Turnbull DA, Moulding NT, Wilson IG, Andrews JM, Hotmann GJ. "It doesn't do any harm, but patients feel better": a qualitative exploratory study on gastroenterologists'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antidepressants in in-

- inflammatory bowel disease. *BMC Gastroenterol* 2007;24:7-38.
- (26) Paykel ES, Hart D, Priest RG. Changes in public attitudes to depression during the Defeat Depression Campaign. *Br J Psychiatry* 1998;173:519-522.
- (27) Interian A, Martinez IE, Guarnaccia PJ, Vega WA, Escobar JI.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Stigma among Latinos Receiving Antidepressants. *Psychiatr Serv* 2007;58:1591-1594.
- (28) Strey JA, Burce ML, A. Plexopoulos GS, Perlick DA, Friedman SJ, Meyers BS. Perceived stigma and patient-related severity of illness as predictors of antidepressant drug adherence. *Psychiatr Serv* 2001;52(12):1615-1620.
- (29) Pyne JM, Rost KM, Farahati F, Tripathi SP, Smith J, Williams DK, Fortney J, Coyne JC. One size fits some: the impact of patient treatment attitudes on the cost-effectiveness of a depression primary-care intervention 2005;35:839-854.
- (30) Salmon P, Wissow L, Carroll J, Ring A, Humphris GM, Davies JC, Dowrick CF. Doctor's response to patients with medically unexpected symptoms who seek emotional support: Criticism or confrontation? 2007;29:454-460.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16(1) : 52-58, 2008 —

Comparison of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Betwee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in a Korean University Hospital

Sang Soo Lee, M.D., Jeok Seok Seo, M.D., Ph.D.,
Seok Woo Moon, M.D., Ph.D., Beom Woo Na, M.D., Ph.D.

Department of Neuro,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Chungju, Korea

Objectives : Antidepressants are prescribed by not only psychiatrists but also general practitioners. However, patients' negative attitude and stigma against antidepressants are major obstacles to prescribe antidepressants in nonpsychiatric outpatient departments. We, therefore, examined patients'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 i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 in Korea.

Methods : Short item questionnaire was applied to medical group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who consented to this survey in a Korean university hospital. 100 medical and 100 surgical outpatients were surveyed. The questionnaire contained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previous recognition of antidepressant, and general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Results : Of the 212 recipients, exclusive of erroneous and missing ones, we analyzed 200 recipients.

- 1) We found negative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among both medical and surgical outpatients.
- 2) Medical group outpatients are answered more' antidepressants cause physically ill.
- 3) The persons who didn't take previously antidepressant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 4) The most reason why they refuse to take antidepressants is concerns of side effects of antidepressants.

Conclusion : There are highly negative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betwee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Study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an active education on antidepressants to nonpsychiatric outpatients to maximize their therapeutic effect and compliance.

KEY WORDS : Antidepressants · Attitude · Stigma.